

# 북촌우물가

Andong Presbyterian Church News Letter

2011년 7월호

통권 제 215호



대안예수교  
장로회 안동교회  
ANDONG PRESBYTERIAN CHURCH

## 6월 교우소식

### 축하

♣ 결혼 - 이한규군·김아영양  
(이성복집사·조정순권사 장남) 7월2일(토)

♣ 새가족 - 임충식(306구역)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LG자이APT 910동505호  
☎ 031)264-9438, 010-2880-9468

### 이사

♣ 이진호·송미진성도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임광APT 101동401호

♣ 김한무 성도 - 용인시 수지구 죽전1동 1118번지  
현대 홈타운 3차 2단지 504동701호  
☎ 031)262-9159

### 감사

♣ 정태순 권사 - 점심 제공

### 별세

☞ 고 신현표 성도(최명애 권사 부군)  
5월30일 별세, 1일 장례

### 입원

♣ 박선숙 집사 - 삼성의료원 암센터 7층52호

### 기타

- ♣ 교역자동정 - 류화숙전도사(아동부)사임 12일
- ♣ 교역자동정 - 김미영전도사(유치부)사임 26일
- ♣ 전화번호 변경 - 이주영 장로 010-3718-1062
- ♣ 출국 - 오원표·김효수 권사  
가족방문차 (6/24-7/25)

## 3040세대의 모임

30대와 40대의 젊은이를 위한 목적이 이끄는 3040모임은 성경공부와 야유회로 진행되었다. 5월 22일(주일)과 6월5일(주일) 점심식사 영아부실에서, 그리고 오후 2시 중고등부실에서 성경공부를 하였다. 담임목사의 강의, 그리고 서로의 삶을 나누는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목적을 향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다짐하는 시간이 되었다.



지난11일(토)에 실시된 야유회 장소는 인천의 '무의도'였다. 20여명의 3040세대와 그의 자녀들이 오전9시 헌법재판소에서 모여서 버스를 타고, 그리고 배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다. 맑은 날씨와 넓게 펼쳐진 바다를 바라보며 서로를 새롭게 발견하는 의미 있는 교제의 시간을 갖았다.

## 멕시코 선교편지

Dios te Bendiga!!(축복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과 평안의 인사를 드립니다. 여러 동역자님들의 기도와 후원에 덧입어 저희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이곳 멕시코 6월의 날씨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도 낮에는 뜨거운 더위로 갈증을 더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몇 주 전에는 큰 우박이 내려 농작물에 피해가 아주 많아 그나마 힘들여 지은 농사가 망가져 버려 한숨들을 내쉬는 안타까운 광경들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희가 이곳 엔세나다로 이사한 지도 벌써 1년이 넘어가며 이제사 조금 자리가 잡혀가는 듯 합니다. 그런데 이곳 멕시코는 아직도 많은 일들로 사람들을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암매장되었던 시신이 수없이 발견되는가 하면, 수많은 시위대들이 급여성상과 일거리 등을 요구하며 데모를 하여 거리는 온통 어수선합니다. 몇 일전에는 근처 Rosarito에서 마약으로 인한 총격전이 있었는데 4명이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4월 부활 주일에는 한 영혼이 세례를 받아 메마른 곳에 단비를 적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곳 엔세나다에서 비영리법인 신청을 하였습니다. 전에는 현지인이 반드시 한 사람 이상 같이 들어가서 다른 선교사들이 어려움을 많이들 겪고 있었습니다. 현지인이 같이 들어감으로 인해 많은 문제가 생겼었습니다. 헌데 감사하게도 요즘은 일시적으로, 저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이라 얼마나 감사한지요. 8월말 정도면 설립허가서가 나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법인설립 서류가 통과되면 저희들의 사역도 훨씬 수월하고 통제받는 것에서 많이 자유로워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기도한대로 처소를 준비하기 위해 많이 다녀야 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비전을 공유하며 함께 동역할 교회와 일군을 더 찾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지금은 예배장소가 없어 임시로 어떤 분의 공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기에 조그마한 처소를 예비하여 하나님께 마음껏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Villa 캄뿐에 예배와 언어공부, 그리고 네 교회에 어린이 주일 학교를 지원하고 있고 그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조금씩 양육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현지인 목사님께 차량을 구입해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2000년식 승용차이며 그 동안 준비한 선교헌금으로 구입해 6월 18일에 키를 전달해 드렸습니다. 얼마나 기뻐하는지 눈물로 축복하며 차량을 가지고 가는 목사님을 보면서 그 동안 차가 없어 얼마나 고생을 했을까? 생각하니 조금 더 빨리 해 주었으면 저들이 좀 덜 힘들었을텐데 하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사실 저희 차도 고장이 자주 나고 수리비가 많이 들어 제가 먼저 써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주님께서 저 보다는 Ricardo 목사가 더 급하다고 말씀하셔서 순종했더니 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 차량을 지원해 주어야 할 목사님들이 여러분 있습니다.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사역을 위해 그들의 필요를 채워 줄 수 있도록. 이곳 저곳의 선교지 방문을 허락하셔서 캐나다와 멕시코시티 땅을 밟으며 귀한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멕시코선교사로서 멕시코를 제대로 볼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멕시코 시티를 돌아보며 아버지의 마음을 많이 아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들이 품고 있는 마음과 신앙에 대해 그리고 우상과 결부된 그릇된 삶 속에서 더욱 멕시코 땅의 영혼들을 위해 기도해야 함을 절감하고 돌아왔습니다. 우상과 음란, 거짓과 분리의 영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으며 소외되고 가난한 영혼들이 방황하는 모습 속에서 아버지의 애통해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저희를 보내신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 없기에 더욱 마음을 다하여 이 땅의 영혼들을 섬기고자 다짐하고 돌아오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정교회들도 두루 다니며 제자들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 속에서 아직 희망이 있음을 보았습니다. 이 땅의 더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제자의 삶으로 사는 그 날까지 있는 힘을 다해 전하고 섬길 것입니다. 멕시코에서 안요섭, 정아매 선교사 드림.

## 해외교우소식

사랑하고 존경하는 안동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시지요? 미국에서 지내고 있는 바울, 주희 인사드립니다.

3주 전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식구 한명을 늘려주셔서 이렇게 인사드리려고 글 남깁니다. 저희



아기의 이름은 김예인 (Yeyin Winnie Kim) 이구요. "예배하는 사람"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예배하는 사람이 되길 소망하며 이름을 지었어요.

얼마 전 저희 가정이 섬기는 한국교회와 현지 미국교회가 연합하기로 결의하고, 기념예배를 하나님께 올렸는데 그 자리에서 예인이가 세례를 받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교회들이 연합하는 귀한 자리에서 8명의 목사님들이 손을 얹고 축복하시는데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한편으론, 존경하는 모교회의 목사님들과 성도님들로부터도 축복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멀리 떨어져 있지만,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좋겠네요. ^^ 예인이를 안동교회에 인사시키는 방법은 사진 밖에 없는 것 같아 사진을 업로드 할게요. 그럼, 안동가족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 가운데 늘 거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미국에서 바울, 주희, 예인 올림

## 여름 성경학교를 기대하며

지난 6월 18일 토요일에 아동부 교사들이 모여 총회에서 하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에 다녀왔습니다. 아침 9시에 신촌에서 만나 강습회가 열리는 교회에 찾아가 개회예배부터 드렸습니다. 이번년도 주제는 "다음세대와 함께 가는 교회" 였습니다. 이번 성경학교가 전교인 수련회로 이뤄지기 때문에

더욱 알맞은 주제였습니다. 설교말씀 중에서 교사로서 인상 깊었던 내용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형의 발꿈치를 잡고 태어나서 형의 장자권을 얻어내고 원하는 아내를 얻기 위해 14년이라는 시간도 아끼지 않는 욕심 많은 야곱, 하지만 야곱은 하나님께 제단을 쌓는 일 만큼은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주 큰 축복을 받습니다. 교사들 각각에게도 '야곱의 욕심'과 같이 단점이나 부족한 부분이 모두 있지만 하나님에 대한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큼은 게을리 하지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자세로 섬김에 임할 때에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모두 채워주시고 축복을 가득히 부어주실 것이라는 것을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동부 교사들은 성경학교 때까지 토요일마다 모여 수련회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교사가 부족하다거나 우리가 준비하기에 힘들고 벅차다는 생각들을 내려놓고 각자 역할을 분담하고 서로 서로 힘을 합하여 진행해갈 것들이 기대됩니다. 모든 프로그램들에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시길 기도해주세요!

## 중고등부소식

중고등부는 5월 마지막 주일, 불광동에 있는 팀수양관으로 야외예배를 다녀왔습니다. 5월 같지 않은 더운 날씨로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많은 땀을 흘려야 했지만, 소소한 기쁨과 즐거움을 얻었던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푸르른 신록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맛있는 식사와 간식을 통해 육의 양식도 섭취하고, 피구·발야구 등 각종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서로 더 가까워 질 수 있었습니다. 그 후, 한주가 지난 토요일(6월 4일)에는 정준모 집사님이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 '갤러리투어'를 해 주셨습니다. 아담한 인원이 참여했지만, 정준모 집사님의 해박한 지식과 안목을 통해 예술품을 대하는 시야를 좀 더 넓힐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 또한 정준모 집사님의 철저한 준비로 작가분 혹은 큐레이터와도 이야기하며 작품에 대한 설명을 들을 수 있었고, 작가분들의 정수가 담긴 작품집 선물을 받는 등 생각지도 못한 호사(?)도 누리보았습니다. 그 래서인지 소수의 인원만 참석한 이번 투어가 못내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강추(강력추천) 할 만한 갤러리

투어였습니다. 6월 마지막 주에는 주말을 이용한 1박 2일의 일정으로 중고등부 교사 워크샵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저녁 6시에 담임 목사님께서 식사를 대접해 주셔서 맛있는 저녁을 먹을 수 있었고, 그 후 현대볼링장으로 자리를 옮겨 신나게 볼링을 쳤습니다. 대부분의 청년 선생님들이 IT 세대여서 인지 볼링에는 익숙치 못했지만, 서로 파이팅하며 신나게 게임을 즐겼습니다. 그리고 소허당에 모여 기도회를 통해 중고등부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과 고민들을 진솔하게 나누며 밤을 지새웠습니다. 그 시간을 통해 한 가지 느끼고 감사했던 것은, 중고등부 모든 선생님들이 누구보다 중고등부를 사랑하고 아낀다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안동교회를 사랑함이 있었고, 그보다 높은 곳에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오늘도 역시 안동교회 중고등부의 미래는 밝다고 생각합니다.

## 사진으로 보는 교회소식

### ▶ 6.25기도회



### ▶ 3040야유회



### ▶ 소그룹모임(장소제공자:박영석집사)



### ▶ 컴퓨터개방예배



### ▶ 호산나찬양팀 수련회



# 총회·연합회·교계 소식

## 총회 개최 장소 '상당교회'로 변경

제96회 총회 장소가 청주 상당교회로 변경됐다. 지난달 28일 총회장실에서 열린 제95회기 제11차 총회 임원회에서는 총회 장소 결정을 철회해 달라는 평양노회장과 강북제일교회 당회장의 요청에 따라 총회 장소를 청주 상당교회(정삼수목사 시무)로 변경했다.

이날 총회 임원회에서는 또 국내선교부가 2012년 총회 창립1백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교단 산하 지교회의 목회 표준화를 위한 목회매뉴얼 제작 발간 요청과 세계선교부가 총회 창립1백주년기념선교대회 개최 요청 등의 건에 대해 총회창립1백주년기념사업위원회로 넘쳐 연구하기로 했다.

세계선교부장이 청원한 총회 파송 필리핀 장동만 이해영선교사의 치료비 모금 청원건에 대해서는 모금을 허락하고 사회봉사부와 세계선교부, 재정부로 이첩해 처리하기로 했다. 모금 청원이 허락된 이해영선교사는 지난해 신종플루로 장녀를 잃은 이후, 최근에 자신도 신종 폐질환으로 위급한 상태에 놓여 있어 총회 차원의 지원이 시급히 요청돼 왔다.

한편 조선그리스도교련맹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에 식량분배계획서를 보내온 것과 관련,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본교단에 대북 지원에 대한 입장을 질의한 것에 대해서는 교회연합사업위원회에 넘겨 논의하기로 했으며 찬송가공회에서 요청한 이사 변경 건에 대해서도 교회연합사업위원회로 넘겨 처리하기로 했다.

## WCC 총회 준비, 보수 교단 반대 야년 자중지란에 '지지부진'

2009년 9월 1일 새벽 2시에 스위스 제네바에서 타전된 '2013년 WCC 10차 총회 개최지,

대한민국 부산으로 결정'은 당시 교계언론은 물론이고 거의 모든 언론에서 속보로 전할 정도로 큰 뉴스였다. 언론들은 일제히 '한국교회의 쾌거', '기독교의 올림픽 한국유치', '전 세계 지도자 5천여 명 동시 입국, 한국을 알리는 절호의 기회' 등의 제목으로 다양한 기사들을 생산해 냈다.

하지만 그로부터 불과 2년이 지난 지금, WCC 총회 준비에 매진해야 할 한국측 총회 기획위원회 안에서 불거진 내용으로 인해 온갖 불협화음이 여과없이 터져 나오고 있다. 당초 에큐메니칼권은 WCC 총회 자체를 반대하는 일부 보수교단들의 결집이 총회 준비과정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고 보고 우려했었지만 뜻하지 않은 자중지란을 겪으면서 당장 발동에 떨어진 불을 끄는 일이 더욱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WCC 총회 한국측 준비위원회의 주요조직이 완료돼 이 결과가 이미 스위스 제네바의 WCC 본부로 전달됐다. 이것이 지난 5월 말의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조직은 완료되지 않았다', '누가, 어떤 자격으로 제네바에 공문을 보낸 것이냐?' 등 각종 주장이 터져 나오더니 급기야는 WCC 회원교단 중 기독교장로회, 성공회, 감리교의 총무 등 3명이 '한국준비위원회'를 아예 처음부터 다시 조직하고 이를 위해 현 조직도 해체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갈등이 표면화됐다. 3개 교단 총무들은 "갈등의 골이 워낙 깊었고 고심 끝에 입장을 발표하게 됐다"며, 당위성을 밝혔지만 어찌되었든 이번 일은 한국교회의 성숙하지 못한 현실을 여실히 드러낸 사건으로 기록됐다.

이번 일로 인해 가뜩이나 촉박한 총회 준비 일정에도 일정부분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당장 오는 7월 9일로 잡혀있는 WCC 총회 기획위원회에서는 준비를 위한 실무논의에 앞서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대화가 첫번째 안건으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으로서는 같은 달 21일에 있는 교회협 실행위원회에서도 비슷한 분위기가 연출될 가능성이 크다. 결국 논의를 진행시키기는 커녕 제자리를 맴도는 시간이 길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시간은 한국교회의 편이 아니다. 이미 WCC 올라프총무가 보낸 서신에는 "WCC의 스태프들이 당초 9월말로 잡혀있던 부산 실사에 앞서 8월초에 한국을 방문해 실무적인 논의를 하길 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는 결국 총회 준비를



더욱 발빠르게 진행하자는 WCC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볼 수 있으며, 한국교회도 실무차원의 협력을 서둘러 진행해 달라는 뜻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한국교회가 가시적인 일정들을 확정하지 못한채 지속적으로 갈등만 빚을 경우엔 '최악의 상황'이 분명 올 수도 있다. 여기서 말하는 최악의 상황은 '개최국 변경'이다.

일부에서는 총회를 고작 2년 앞둔 시점에서 개최국을 변경하는 것이 쉽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WCC는 역사적으로 개최지를 변경한 경험을 가지고 있다. 1975년 케냐 나이로비에서 열린 5차 총회 때 WCC는 총회를 불과 1년 앞둔 시점에서 개최국을 변경했다. 당초 WCC는 세계 최대의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에서 총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총회를 앞두고 국제정세가 급변하면서 테러의 가능성이 고조되자 최종적으로 '케냐 나이로비'로 방향을 틀었다.

한국교회가 지난 2009년 중앙위원회에서 시리아의 다마스쿠스와 경합 끝에 10차 총회 개최지로 최종 선택된 이유는 '한반도의 통일이슈'와 '에큐메니칼권과 비에큐메니칼권 사이의 협력 가능성' 등이 높은 점수를 받았기 때문이다. 그만큼 '협력과 화합'이 한국 총회에서 크게 기대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찾아들지 않고 부상하는 입장 차이들은 총회 준비도 더디게 할 뿐 아니라 협력이라는 대전제를 뿌리부터 뒤흔드는 좋지 않은 결과를 낳고 있다.

절대 일어나서는 안될 일이지만 만약이라도 총회의 국내 개최가 결렬될 경우에 일어날 파장은 매우 클 것이 자명하다. 이미 문화관광부도 WCC 총회의 지원을 위해 실무차원의 검토와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개최도시인 부산시도 손님 맞을 준비를 시작했다. 문광부 중무실의 한 관계자는 최근 "평화와 통일, 화합을 주제로 전 세계에서 수 천명의 지도자들이 방한하는 만큼 정부로서도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하면서, WCC 총회에 대한 관심을 표한바 있다. WCC 총회를 교회만의 문제로 보기에는 정부와 지자체의 관심이 매우 큰 형편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에큐메니칼권에 불어닥칠 '메가톤급 쓰나미'다. 만약이라도 개최지와 관련해서 WCC 본부가 지금과는 다른 입장으로 선회할 경우 한국교회는 지리한 책임공방에 빠져들

것으로 보이고, 자연스럽게 에큐메니칼권의 관계는 소원해지는 것을 넘어 완전히 단절될 것이다. 사실상 연합운동 자체가 중심을 잃고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동시에 오랜 세월 쌓은 신뢰가 무참히 깨졌다는 상실감은 교단 간 이어왔던 대화의 전통을 송두리째 무너트릴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한 에큐메니칼 원로는 기자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지금은 의견을 달리하는 양측이 서로 냉각기를 가져야만 하는 시점"이라면서, "많은 걱정이 되는 게 사실이지만 반드시 대화를 나눌 수 있고 공감대를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화합의 가능성을 내다봤다.

## 장애인 신학 정립 위해 신학자들 모여

장애인신학 정립을 위해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가 또 한 보의 걸음을 내딛었다. 총회 사회봉사부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위원장:채은하)는 지난 6월 23일 유성 아드리아호텔에서 '장애인신학정립을 위한 2차 포럼'을 개최했다.

장애인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와 장애인선교를 위한 신학적 기초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된 이번 포럼에서는 채은하교수(총회장애인신학준비위원장·한일장신대)와 황홍렬교수(부산장신대학교)가 각각 주제강의를 했다.

이날 '구약성경에 나타난 장애인의 삶과 장애인 신학의 시도'의 제목으로 강의한 채은하교수는 "구약성경은 장애인에게 인식하고 잔인하지만 흑인 신학이나 여성 신학처럼 성경을 재조명하면서 흑인이나 여성의 인권과 인식이 바뀌듯이 장애인 신학 역시 성경 안에서 달리 해석될 가능한 여지가 많고 실제로 장애인의 인권과 인식을 바꿀 수 있는 본문들도 찾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성경인물 중 르비보셋과 욥을 중심으로 탐구해 발표한 채 교수는 "장애는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무차별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으로 사람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냉대하고 범주화한다. 그래서 장애인은 약하고 의존적이고 가난하고 무지하고 무익하다와 같은 부정적 편견과 무시가 늘 따라다닌다"고 지적하고 "누군가가 지니고 살아가야 할

장애는 이 시대의 대표적 아픔이지만 서로 보듬고 겨안는 곳은 예언자의 예언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애인선교신학서설'을 주제로 강의한 황홍렬교수는 "장애인선교의 목적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장벽을 무너뜨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것"이라고 정리하고 "장애인선교신학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의 사명과 장애 입은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 공동체 교회론, 주변성의 주변으로서의 교회론에 기초하며 하나님의 선교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말했다.

특히 황 교수는 "성서의 장애인 이해는 양면적이지만 당시의 지배문화의 영향을 비판적으로 검토해 긍정적 이해를 심화시킬 필요가 있다"며 "장애 입은 사람들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볼 수 있는 원천은 부활한 예수님이 장애 입은 채로 부활했다는 데 있으며, 장애 입은 채로의 예수님의 부활은 새로운 인간성을 제시하는 데 장애와 온전한 인간성이 공존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강의 후에는 최대열목사(총회사회봉사부장 장애인복지선교협의회 총무·명성교회)와 이계윤목사(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가 두 강의에 관련해 토론을 인도했으며, 이범성교수(실천신학대학원)는 종합토론을 인도했다.

장애인신학준비위원회는 3차 포럼을 준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위원들간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한 내부 토론의 시간이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같이했다.

## 韓·日 '이단사이비 전문가' 한자리에 모였다

한국과 일본 이단·사이비 전문가들이 모여 관련 피해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위원장:유한귀)와 일본기독교단(UCCJ)이 공동 주관한 '한·일 연합 이단사이비대책 세미나'가 23~24일 대전 유성교회에서 열렸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양 교단 관계자의 특강과 이단 피해사례 보고, 대응책과 공조방안 논의가 있었다. 본교단에서는 최삼경목사(빛과소금교회)가 '한국

기독교의 이단사이비 실태와 대책'에 대해 강연했다. 최 목사는 최근 한국에서 일본으로 유입된 신흥 종교집단이 늘자 이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주제를 이같이 정했다.

최 목사는 "현재 한국에는 이단에 빠진 신도가 약 1백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은 대부분 기성교회 성도들"이라며, 이단사이비 문제가 위험수위를 넘었다고 전했다.

또 최 목사는 주요교단의 이단 연구보고 목록을 밝히며, 대처 방법으로 "모든 성도들이 이단에 대해 공동의 사명을 갖고 미리 경계해야 한다. 그러면서 바른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도 필요하다"며 "지도자들은 이단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교인들에게 알려주고, 이단을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상담할 전문기구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일본측에서는 시미즈 요시오(Shimizu Yoshio)목사가 '통일교'의 문제점을 짚어냈다. 시미즈 목사는 "일본에서의 통일교는 종교문제 뿐 아니라 인권문제와도 연결된다"며 "통일교는 정체를 감춘 위법 전도와 탈회 방해, 위법 현금활동, 정신 파괴를 자행하고 있다. 사회전체 문제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특강 후에는 양측 임원들이 모여 이단 대책과 관련한 협력방안을 놓고 심도있게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일본기독교단 선교위원장 하리타 마코토(Harita Makoto)목사는 "현재 일본에서는 통일교와 JMS가 큰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특히 통일교의 경우, 일본 여성들이 합동결혼식을 통해 한국에 들어간 후 연락이 끊기거나 불행하게 사는 사례가 발생해 가족들이 애타게 찾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리타목사는 "한국에 거주하는 통일교 일본 여성신도 7천여 명에 대한 소식을 알고 싶다. 도움을 달라"는 제안을 했다.

이에 대해 본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 유한귀목사(잠실제일교회)는 "실무를 맡을 창구를 만드는 일이 우선되어야 한다. 이 부분에 대해 계속해서 공동 연구하자"는 입장을 표명했다.

한편 참석자들은 일정 둘째 날에 충남과 대전지역 이단사이비 집단 현장담방을 하며 경각심을 고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 日 동북지방 피난소 급식봉사를 다녀와서

강장식목사(총회과송 일본 선교사·시나가와교회)

지난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난지 3개월이 지났다. 지진, 쓰나미, 방사능의 3중 재앙으로 일본은 지금도 충격에 휩싸여 있으며, 한국교회의 사랑과 기도가 절실한 형편이다.

행방불명을 포함한 사망자는 2만3천500여 명에 달하며, 반과 이상의 피해를 입은 주택이 18만4천2백 가구로, 하루 아침에 38만여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이 시점에서 9만3천4백여 명은 여전히 체육관과 공공시설 같은 피난소에서 단체생활을 하고 있으며, 정부가 임시거처를 마련하느라 분주히 움직이고 있지만 엄청난 피해규모 앞에 속수무책인 상황이다.

필자는 한국교회의 지원물자를 나누주는 봉사를 하면서 2박3일씩 두 번에 걸쳐 피해지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다. 거대한 쓰나미에 뒤덮였던 해안 도시에는 제대로 남겨진 것이 없었다. 처음 보는 참혹한 광경에 자신도 모르게 깊은 탄식이 쏟아져 나온다. 최근 다시 가본 현장은 세 달 전 모습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긴 인내와 수고, 그리고 끊임없는 격려와 사랑만이 다시 미래를 꿈꾸게 할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된다.

시나가와교회는 작은 교회지만, 피해지역을 위한 봉사에 참여할 기회가 있었다. 이재민들이 삼각김밥, 우유, 빵 등의 가공식품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는 보도를 접한 교인들이 현지에 가서 따뜻한 식사라도 대접하고 싶다고 제안한 것이 발단이 됐다.

사실 필자는 '지진으로 교인들의 수가 줄었고, 계속되는 여진과 방사능에 심신이 지쳐있어 과연 교인들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피해지역에 가서 섬기겠다는 교인들이 늘면서 바자회를 열어 기금을 마련했고, 그 기금으로 피난민을 위한 급식봉사 계획이 세워졌다. 지난달 19~21일 열린 바자회에 한 권사님은 3년에 걸쳐 정성껏 만든 쿼트작품을 헌품하기도 했다. 또한 다른 여전도회원들도 김치를 비롯한 각종 한국요리를 만들어 판매했다. 한국인들이 일본인을 돕는다는 취지에 공감한 현지 주민들의

작은 기부들이 이어졌고, 물건을 저렴한 가격에 팔았음에도 25만4천3백39엔의 기금을 마련하게 됐다.

여기에 한국 교회들의 후원까지 합쳐져 보다 풍족한 가운데 미야기현 미나미산리쿠의 피난소인 시즈가와고등학교에서 피난민과 봉사자들 2백50명의 점식식사를 제공했다. 1만7천 명의 인구가 살던 미나미산리쿠에서는 일천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했으며, 주민 대부분이 집을 잃어 아직까지 5천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피난소 생활을 하고 있는 곳이다.

처음 도착하자 완화된 거리 모습에 적지 않은 충격을 받았다. 토요일이었지만 거리에는 사람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며, 복구를 시도할 상황이 아님을 쉽게 직감할 수 있었다. 한식 메뉴로 준비된 반찬들과 불고기 25kg이 줄을 선 일본인들에게 곧바로 배식됐다. 인사를 건내는 일본인들에게 힘내라는 격려의 말을 전하고 싶었으나 여전히 무거운 그들의 어깨와 표정을 보며 '많이 드세요'라고 인사할 수밖에 없었다. "고기를 오랜만에 먹어본다"는 감사가 이어졌지만 오히려 인사를 받는 것이 미안할 따름이었다. 일본은 선진국이어서 재해를 당해도 굶주리지는 않는다고 말한다. 그러나 어떤 재해 지역이든 피해자들이 쓰라린 고통의 눈물을 흘리는 것은 똑같은 것 같다.

일본의 피해지역 교회들은 스스로를 지키며 이웃을 품어야 하는 2중의 사명을 감당하느라 많이 지쳐있다. 이 위기가 그들에게 성숙과 부흥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이들을 지원해 줄 많은 기독교인들의 사랑이 절실하다. 한국교회가 후원과 기도로 그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총회·연합회·교계소식]은 한국기독교공보(<http://www.kidokongbo.com/>)를 참고하였습니다.

## 북촌우물가

2011년 7월호 · 통권 제 215호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안동교회

발행인: 황 영 태

편집인: 안 중 혁

안 재 훈

발행일: 2011년 7월 7일